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12

2021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묵상집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12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영적 순례의 길을 나서며	04
주제 성구	06
주제 해설	08
묵상집 사용 안내	11
묵상자료	
재의 수요일	12
사순절 첫째주일	16
사순절 둘째주일	23
사순절 셋째주일	30
사순절 넷째주일	37
사순절 다섯째주일	44
종려주일	51
고난주간 현장기도	52
부활주일	63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2021년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례의 여정을 거치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처음 겪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교회도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끈을 든든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상의 복귀를 희망하며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 이어온 총체적인 인간의 문제가 코로나19로 분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불의와 고통과 탄식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온 세상을 멈춰 세우고 고통과 희망 사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막 16:12) 단순한 회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추어 성찰하며 변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달라진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진 창조세계가 다시 생명 가득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의 고통이 생명을 낳는 희망의 진통이 되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뜻을 깊이 성찰하는 부활절맛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이 경 호
총 무 이 흥 정
위원장 육순종

신명기 30:1-4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복과 저주를 담은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흠으셨다고 하자. 그러나 거기에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와서 너희와 너희 자손 이 마음을 모아 기울이고 있는 정성을 다 쏟아 오늘 내가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보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 쫓겨갔던 너희를 만백성 가운데서 다시 모아들이시리라. 너희가 비록 하늘과 땅이 맞닿는 데까지 흩어져 갔더라도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너희를 거기에서 모아 데려오실 것이다.

로마서 8:22-25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마가복음서 16:9-15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두 사람도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12

정경일 | 새길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푸른 지구 행성의 모든 생명과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관계성의 진리입니다. 초연결 세계에서 ‘나’의 안전과 ‘너’의 안전은 무관할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도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이 자연에게 행한 것은 늦든 빠르든 인간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모든 피조물”의 한 구성원이며,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통’은 해산의 진통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파멸하는 절망의 진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희망의 진통입니다. 팬데믹을 희망의 진통으로 전환해 참고 기다릴 때, 팬데믹 이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탄생은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건입니다. ‘되어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선택과 지속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모세가 그의 고별설교에서 재난이 닥칠 때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을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 끝에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고통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옴’은 ‘참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전환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모세의 설교는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포로 생활과 같은 상태에 계속 있게 하실 거라는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교에서 모세는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 너희는 반드시 망하리라.”(신 30:17-18)라고 준엄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BC)’과 ‘코로나 이후(AC)’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재난을 겪고도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재난을 초래한 탐욕과 폭력과 거짓의 삶을 다시 산다면, 팬데믹 이후의 인간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희망의 기쁜 소식은,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여성 마리아는 한두 귀신도 아니고 무려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모두 쫓아내어 주셨을 때, 그는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모두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기에, 마리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오늘,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21년 한국기독교 부활절맞이 목상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순례를 통해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워진 생명과 희망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순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성경은 주제성구는 '공동번역'을, 목상글에서는 '새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 ※ 목상집의 형식은 '제목-성서-목상글-기도마중물'입니다.
- '기도마중물'을 적절히 활용해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게,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상집 제작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지그림

한희원 | 화가·시인 <http://hanheewon.com/>

집필진

정금교 | 누가교회

정경일 | 새길교회

임의진 | 순례자복음교회

박지은 | 이화여자대학교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십 일

열왕기상 19:7-8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사십 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 산에 도착하였다.

지난해 봄을 기억해 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 재난이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에 빠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포와 함께 시작된 전 지구적 격리와 봉쇄 기간은 그리스도교의 사순절과 겹쳤습니다. 사순절은 사십 일四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과 고통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격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쿼런틴quarantine’에도 ‘사십’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십은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히브리인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지친 엘리야는 사십 일 동안 광야를 걸었고, 예수님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십은 변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지친 예언자가 새 힘을 얻고, 메시아가 소명을 깨닫습니다. 사십 년, 사십 일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백신 접종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올해 사순절에도 우리는 사십 일 동안 홀로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시간이라면 이번 사순절 사십 일을 단지 격리나 고립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참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영적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 주님,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재난 속의 기쁨

고린도후서 8:2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마스크를 쓴 채 버스를 타고, 안경에 서리는 김을 불편해하며 손잡이를 잡았고,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건 아닐까 찝찝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햇살처럼 밝게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작은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는 마스크를 쓴 채 웃으며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로 웃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였을까요? 눈가의 웃음이 더 활짝 피어났습니다. 어른들이야 코로나 이전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관계 방식을 배웠지만, 이제 막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작 이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기도 즐겁게 웃고 놀며 살아가네요. 재난 속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과 기쁨이 낯설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훗날 인생을 돌아보며 고통도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어둔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다 잠자기 멈춘 사이, 젖은 먹구름 사이로 고운 달빛이 살짝 드러날 때가 있듯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재난버스’ 안에서도 아이들의 기쁨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쁨 없는 재난은 재앙이겠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고통 속의 기쁨이 있었기에 박해의 환난을 견디고, 가난해도 베풀 마음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 주님, 우리가 고생한 그 날수만큼, 어려움을 당한 그 햇수만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90:15)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요한복음서 16:33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 달라진 생활 양태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들을 합니다. 불안한 중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는 평화, 시련, 용기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니 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이렇듯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을 사랑하며 공의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갔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시련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 시대 코로나든 가난이든 재해와 불안이든 변하지 않는 인간애와 자비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 시련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소서.

튼튼하게 서 있기

여호수아기 3:8, 17

“이제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의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 무리들이 광야 40년 동안 잘 정비된 공동체가 되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급하게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의 갈대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강물이 좌우로 끊어져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그들은 안전하게 건넌습니다. 그 동안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강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기록에 뭉클해집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나 자신의 무게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내손으로 만들어 채우는 핸드메이드,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정주定住, 홀로 견디어 내는 신독愼獨, 모두 자기 자신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서 든든히 버티어 준 제사장들의 힘입니다. 코로나 발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견인할 든든한 지도자들로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주님, 어려움에 처한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든든히 버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 속으로

로마서 12: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추운 겨울 이사를 끝내고 보니 작은 화분의 화초가 얼어버렸습니다. 큰 물건들이 잘 옮겨지고 있는지 살피는 동안, 작은 화분에는 마음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장 따뜻한 방 창가로 화분을 옮겨 주었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정인이의 죽음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물면서 학대 받은 어린이들도 떠올려 봅니다. 내 삶의 무게감으로 돌보지 못했던, 관심이 필요했을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니,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려니 너무도 부끄러워 집니다. 나의 아픔만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정작 다른 이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뉘우쳐 봅니다.

얼어버린 화초가 햇볕을 듬뿍 받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화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들여다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예수님의 빛도 듬뿍 받으려 합니다.

-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돌교회

마태복음서 8:2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울을 떠나 본가로 내려갈 때면, 사라진 추억의 장소가 생각나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돌교회입니다. 돌로 지어진 교회라 동네에서는 돌교회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재개발로 교회는 이전을 선택했고, 돌교회는 허물어졌습니다. ‘나도 그 때 돌을 날랐다’는 추억담을 이야기했던 어르신들은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뒷동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울창했던 돌교회 자리에 지금은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공간을 빼앗긴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곳을 지날 때면 일평생 일군 생존의 터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던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집니다. 일년 넘게 지속되는 감염병으로 일터를 접고, 갈 곳을 찾는 이들의 아픔도 돌아보게 됩니다. 문득 머리 둘 곳을 찾았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2021년 또다른 모습으로 머리 둘 곳을 애타게 찾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추운 겨울,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 땅에서 그 옛날 투박한 돌로 집을 지어주었던 예수님의 돌망치 소리가 그립습니다.

- 주님, 생존의 갈림길에서 기댈 곳을 찾는 이들의 아픔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

마태복음서 25: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은 약자 보호에 맞춰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무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시라 그들 역시 그렇게 살도록 정한 법이기에 약자보호법이라 불릴 만합니다. 이 법 정신은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이었고, 예언자들은 이 정신을 수호하였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 약자 보호라는 법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예언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보잘 것 없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약자 보호의 맥을 이어가는 이들입니다. 교회는 이 약자보호법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수난과 절망에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다 헛일입니다.

- 주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마태복음서 15:36-37, 39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엸다.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세밀하고 따사로운 이 연민의 말을 되새김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뒤로, 어느 누가 저 혼자 살겠다고 주먹밥을 감추거나 구운 물고기를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세끼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야참, 무려 네 끼 식사를 하던 때, 갈릴리 광야 사람들은 하루 두 끼도 감지덕지하고 굶은 빵도 찌개 나눠 먹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나마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먹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행여 집에서 굶었을까 마음이 쓰입니다. 밥 나눔은 가장 큰 원초적 행복이지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손 모아 감사하는 일, 간소하고 겸허한 밥상 앞에서 평화는 순박한 미소로 꽃핍니다.

곤궁한 삶이라도 누군가 곁에 함께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솟구칩니다. 적절하고 신성한 노동을 끝낸 뒤 정갈하게 씻고서 다함께 식탁 앞에 둘러앉는 기쁨. 주님께서 다시 그 밥상에 초대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배고파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이웃을 돕는 손길, 당신의 기도와 사랑에 벌써 아랫배가 따스하고 마음이 싹 놓입니다.

- 주님! 우리의 이웃은 어떻게 사는지,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항상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혼자 그리고 함께

요한복음서 8: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옆 차선을 나란히 달리는 차 안 운전자의 모습이 창밖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버스 안에서 바라본 낯은 트럭 안에는 인생의 고달픔이 깊게 새겨진 얼굴을 가진 분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웬지 모를 외로움으로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홀로’와 친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때로 ‘혼자’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취약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혼자’가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와 ‘함께’가 모두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문득 트럭 운전자의 얼굴에서 저의 얼굴이 스쳤기에 허전한 마음이 든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봅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 얼굴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숨 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사무엘기상 2:1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큼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을 알리기 위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떠났던 아들을 가슴에 묻고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일어섭니다. 늘 배고팠던 아들을 생각하며 노동자들을 먹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머니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고통의 현장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41년”이란 EBS 영상에서 어머니는 “변한 게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소선 여사가 소천한 지 올해로 10년이지만, 변한 것이 없어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일터로 갈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한나에게 응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찬가를 저는 새롭게 쓰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일어섭니다. 늘 고통 곁에 머물면서, 변한 것이 없어 미안해하는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변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일어섭니다. 돌아보니, 십자가 곁에서 아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느새 곁에 있습니다.

- 주님, 세상이 변하는 그날까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췌물 쓰지 마라”

요한복음서 7:37-39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명절의 7일간 황금 포도주병에 실로암 연못의 물을 채워 성전에 가져가 들이 붓는 예식을 하는데, 단비를 바라는 기우제가 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빗물 대신 과연 생명수와 같은 이가 찾아왔어요.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초막절 장엄한 예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동행, 더불어 연대하는 사랑으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합니다.

당진 용강로 노동자 29세 김모 씨는 작업 도중 헛발을 디더 5m 높이의 용광로 속에 빠져 숨졌는데, 섭씨 1,600도가 넘는 췌물에 그만 스러졌지요. 이 사건이 있고 한 네티즌이 이런 추도시를 남겼어요. “그 췌물 쓰지 마라. 광염光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췌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가로 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노동자들의 서러운 피땀에다 장성한 성인의 몸까지 녹아든 췌물. 오로지 성령의 물만 허락해 주시길 빌며, 이 슬프고 아픈 췌물로 초막절의 ‘황금 포도주병’을 채우지 않기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개울이 아닌 죽음의 췌물에다 노동자들을 등 떠밀지 말기를.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는 황금빛 주병의 물은 이제 멈추라고,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물을 나누어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주님! 생명과 안전을 허투루 여기지 않도록 세상을 깨워 주십시오.

잊혀진 고통

욘기 2:9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욘의 아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살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욘의 고통의 이야기만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 없는 자의 전형으로 욘의 아내를 해석하는 말에 익숙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욘의 아내의 고통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외면당한 채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그동안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당해도, 선하게 살다 부당하게 고통을 받아도, 묻혀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잊혀지도록 강요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약자들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는 욘 아내의 말에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도록 욘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말이 아내의 말입니다. 잊혀진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듯 합니다.

- 주님, 그동안 홀로 아파했던 이들을 외면했던 저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이 고통에게

빌립보서 1:4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평생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오신 알로이시우스 피어리스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제 고통도 해결하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제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당신의 친구 신부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신부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분이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른 아침 피어리스 신부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지난밤에 두통 때문에 잠들 수 없어 기도하며 밤을 새기로 했는데, 피어리스 신부님의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친구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거죠. 피어리스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고통받는 타인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폭력이 정상이요 일상이었던 로마제국 시대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에 처해 있던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교회 자매형제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또한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기도의 신비입니다.

- 주님,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 함께 힘들어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경건한 사람들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종교적 용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위대한 종교적 성인이나 영적 구도자를 떠올리죠.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고아들과 과부들처럼 곤경에 빠진 이웃을 돌보는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일까요? ‘의자놀이’ 하듯, ‘서바이벌 게임’ 하듯 혼자만 살아남으려는 각자도생의 길을 거부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다 가지려는 승자독식의 세태에 맞서 작은 것도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세속의 이기적 욕망을 거스르며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사는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재난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병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보건의료인, 방역 요원, 돌봄 노동자,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플랫폼 노동자, 불편을 감수하며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평범한 시민 등,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위태롭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처럼 끔찍한 파국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결의, 우리 안의 경건한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헌신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청바지를 입은 예수

야고보서 5:3-6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깡마르고 벗겨진 진흙 덩어리를 본 친구 장 주네는 “저건 말이야, 상처야! 상처” 이렇게 말했다. 휘청휘청 걸으며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조각품. 상처를 싸매는 형겁도 없이 조각들은 맵찬 추위 속에서도 구릿빛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옷은 상처를 싸매는 형겁 조각, 상처를 연지 않으려 튼튼한 질감의 옷을 구해 입지요. 청바지는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뽀뽀한 천막천으로 재단한 바지가 시초였는지요.

유대 땅 사람들은 양털이나 염소털 실로 튜닉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흰색 튜닉은 예세네파가 즐겨 입었죠. 예수님께서 살았던 북부지방에선 통으로 된 튜닉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끝.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행하는 치렁치렁한 비단옷과 고급 아마포 튜닉을 걸치며 부유함을 뽐냈습니다. 단벌 청바지, 단벌 튜닉 차림이었다가 그나마 그 옷마저 빼앗기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목수 예수님. 그(들)의 숨찬 노동과 빼앗긴 일당 임금을 딛고 누구는 사치와 유흥을 누리는 물신物神의 세계.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야고보는 어그러진 세태를 고발합니다.

- 주님, 더 많이 가지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얼마나 더 주님의 옷을 빼앗아야 할까요. 나누고 비워서 당신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는 향아리가 되겠습니다.

“와서 보시오”

요한복음서 1:46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은 나다나엘을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매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이 말한 “와서 보시오.”는 아마도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오. 그분과 우리의 말, 태도, 행동, 먹고 마시는 것, 걷는 것, 멈추는 것, 앉는 것, 눕는 것을 보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빌립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의 공동체와 함께 실현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았습니다(요 13:35).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사귀고,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사랑이 깃든 작은 말,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와서 보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마태복음서 8:5-7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 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모두에게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 인종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를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종의 아픔을 돌아보며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백부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종을 그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은 종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백부장은 기적같은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종교인들이 종교인답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이 귀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픔의 곁을 지키는 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곁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 주님,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접속’에서 ‘관계’로

고린도후서 10:11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늘 외롭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이유를 심리학자 세리 터클은 기술적 ‘접속connection’은 있지만 인격적 ‘관계relationship’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관계하지 않고 접속만 하게 되었을까요? 터클은 “인간관계는 풍부하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로운 것이 싫어 접속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인간의 관계에는 책임과 수고가 따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매형제에게 보낸 ‘원거리 비대면 편지’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가 편지에 적은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염려와 따끔한 질책이 마치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직접 만나 말하고 행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접속이 아닌 관계를 체험해야 합니다. 비대면 또는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서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하는 ‘온택트ontact’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온택트의 ‘온’이 ‘따뜻할 온溫’이라면,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바울이 쓴 것처럼 말과 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면,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깊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 영이신 주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지내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방식

고린도전서 3:3-4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귀한 줄 알게 되었고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만나지 못할 뿐인데 전화와 편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묶이는 바람에 다른 소통도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 되새기게 되고 소속이란 것이 실상은 종속이고 의존인 부분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어리석었다는 반성도 합니다.

바울은 종속되고 의존적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야 이웃도 거룩하게 봅니다.

- 주님, 홀로 있게 되더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치유의 온기

전도서 4:10-11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추운 겨울이면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한 일화가 생각나곤 합니다. 좁은 감방에서 여러 수감자들과 함께 지내다보니 더운 여름에는 열기로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동설한에는 동료들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며 이웃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와의 다름이 쉽게 수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까이 있는 동료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름이 누군가에게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밀쳐져 넘어질 때에야 누군가를 밀어냈던 모습을 깨닫고 뉘우치는 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로, 불안으로 얼어붙어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치유가 절실한 때입니다. 곁의 누군가의 온기가, 따뜻한 체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고 감사할 때입니다. 너의 온기로 너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 주님, 미움과 혐오, 불안과 공포를 치유하는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성전을 떠나

마가복음서 13:1-2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 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텅 빈 교회를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순식간에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재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면 교인들도 돌아 오겠지만,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존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공공성 없이 순전히 예배만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은 의미도 쓸모도 없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미련 없이 성전을 떠나신 것처럼, 성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 시대의 종식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 중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부정’하신 것 같습니다. 성전에 가시던 날 아침,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할 뿐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건물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혹독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한국 교회에 오셔서 거대한 텅 빈 교회들을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건물이나 제도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갈때기

마가복음서 12:41-43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렵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소비욕, 탐욕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소비로 기분 전환하려 해도 현대인의 분노지수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손발을 움직여 깔고 만드는 생산적인 노동의 보람을 느끼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로만 살아가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삶은 무의미하고 공허하죠.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결코 짧은 생애를 사신 게 아닙니다. 장수한다고 만족이 될까요?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노인의 우울증도 늘어납니다.

가난한 여인이 바친 두 렵돈 헌금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전 체제는 하층민의 돈을 삼키는 갈때기 구조였습니다. 어떤 경우 과부의 가산 전체를 신앙의 이름으로 앗아가기도 했지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상황에 닥친 가난한 이들의 순수한 신앙, 그 성품을 희롱하는 성전 체제와 식민 지배에 대한 노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전이 진정 보살펴야 했던 계층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렵돈엔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없어요. 렵돈과 세겔은 작은 주화였고 서민들만 사용했죠. 빵 한 개 값이나 겨우 되는 이 작은 동전.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마세요.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죠. 이미 충분히 가진 재물을 이제는 풀고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 주님, 저에게 주어진 목숨을 충실히 살아가며, 쪼개어 사용할 때 콩 한 개라도 나누어 쓰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리토스트론, '돌을 박은 자리'

요한복음서 19: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의 리토스트론. 재판석 리토스트론은 기억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 돌재판석 위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비정하게 넘겨줍니다. 봄 햇살을 받은 대지에 뿌리를 박은 자리라는 뜻의 '에리조메노이'(골 2:7)와 상반되는, 돌을 박은 재판석엔 살림이 아닌 죽임의 냄새가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재판관이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는 동시대를 산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님을 확인함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처형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며 사법 살인임을 기억하고자 함도 있을 겁니다.

무법적 검찰 권력을 비롯, 사법부 전반까지 개혁의 과제는 차고도 넘칩니다. 브라질 민주주의의 퇴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민주주의의 위기"는 흡사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무능한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가 실종되자 기득권층, 검사, 법관, 군부, 재벌이 판을 흔들고 이익을 공유하지요. 무엇보다 부패한 사법부는 물신숭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기소와 판결들로 억울한 이들이 속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시몬에게 '밑돌 반석'이 되라고 '베드로'란 이름을 안겨 주셨습니다. 무전유죄의 재판석 돌자리가 아니라 반석 같은 사람 위에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신 겁니다. 사람이 먼저여야 사람이 '먼지'가 되어선 안됩니다. 민심이 천심, 사람은 하늘입니다.

- 주님! 생명이 생명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정의를 주십시오.

슬픈 예수님

마가복음서 1:12-13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곧 힘든 광야 생활이었겠지요. 광야 장면은 그가 태어나던 당시 잔인했던 그 밤을 생각나게 합니다. 헤롯이 자기 왕위를 영구히 지키겠다고 인근 아기를 다 살해한 그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참혹한 삶의 한 단면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배경은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 절망의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절망의 날들을 지나와 마침내 그들처럼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항변도, 도움 받을 데도 없이, 고통 속에 외롭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었습니다. 마구간과 광야와 십자가는 가난한 그들의 공통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 수난과 패배는 예수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재해와 가난과 고독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 건물을 슬프게 바라봅니다.

- 주님, 한국 교회가 '보잘 것 없는 이'들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소서.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때

누가복음서 17:37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柱廊을 거닐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끝장을 보려고 독수리들처럼 둘러쌌니다(요 10:22).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독수리는 날것, 죽은 것, 가리지 않습니다. 소수자, 약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적은 숫자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등학교를 합니다. 무슬림 여인들이 히잡과 차도르 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모양 다른 문화를 지닌 이를 차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말문이 막힌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아직 나이가 선도 안되었는데”(요 8:57) 라며 나이를 들먹이기도 합니다.

부활 후 나타나신, ‘다른 모양’(막 16:12)이란 부분에선 ‘모르페’란 헬라어를 씁니다. 다른 인격이 아니라 다른 형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죠(빌 2:7).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독수리처럼 에워싸 달려듭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눅 24:16). 소수자, 약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넘보며 냉큼 죽이려고 합니다.

- 주님,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든든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불의에 대한 통찰력도 주소서. (헤른후트 형제단의 기도)

지금은 성찰할 때

전도서 7:14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신뢰도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난해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하위 극우 정당 바로 위가 종교였습니다. 그나마 꼴찌는 면했으니 다행인가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이웃종교인들은 무척 속상했을 겁니다. 사실 개신교로 인해 종교의 평균 신뢰도가 추락한 거니까요. 아마 종교별로 구분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다면 틀림없이 개신교가 최하위를 차지했을 겁니다.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 많은 원인들 —교회 세습, 반공 극우 행태, 배타주의, 성 불평등, 성범죄, 소수자 혐오 등— 을 관통하는 것이 교회에 내면화된 ‘반지성적 태도’입니다. 오늘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를 초월하며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교회는 기본적 사유 능력을 심각하게 결여한 반지성, 반사회 집단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는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재난의 이 때야말로 성찰의 때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시대의 표징을 바르게 읽고 책임 있게 응답하는 지적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복음에 비추어 분별하고,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실천한다면, 교회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희망입니다.

-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성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모두를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종교의 자유’와 ‘사랑의 의무’

미가서 6:8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020년 ‘코로나 1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눈치 보이고 고단하지 않았나요? 식당이나 카페 옆자리에서 누가 ‘교회’, ‘기독교’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소리를 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괜히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없나요?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협력했지만, 그래도 억울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큼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 일부 교회의 잘못된 전체 교회의 잘못이니까요.

전대미문의 재난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며 공적 방역 노력에 협력했는데, 일부 한국 교회는 마치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팬데믹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안전에는 관심 없고 교회의 안녕만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도 제물도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사랑을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예언자의 시대에도 팬데믹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재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종교의 자유보다 사랑의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제사요 예배가 아닐까요?

- 주님,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당신을 예배하게 하소서.

흙수저 가난뱅이라도

이사야서 20:3-5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앗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단순히 말만 앞세우고 뒤는 무른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갑오농민전쟁의 농민군처럼 갈릴리 민중들은 지도자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탐욕과 분노, 무지와 욕망, 시기와 증오로 범벅된 세계에서 예언자들은 맨몸, 맨발로 뛰쳐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갔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날선 기세가 필요합니다. 뒷짐 지고 점잖은 척, 세련된 외형을 추구하는 분위기는 불의에 대해 침묵과 무관심을 부탁하죠.

3년 동안 흠뻑 벗은 채 맨발로 지낸 예언자 이사야. 바닥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 갈릴리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또한 수치와 모멸, 수난과 비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자발적 청빈의 전통은 민중들과 공감을 나누면서 ‘강고한 자매형제애’를 싹틔웠고요.

경상도 친구가 ‘만다꼬’ 그래요. 헛된 욕망에 매달리면 “만다꼬” 하면서 기운을 쏙 빼줍니다. 반대로 선한 일에 힘을 보태려면 ‘우야꼬’ 한답니다. “우야꼬” 하면서 연민의 눈을 뜨죠. 맨발이면 어떻게 흙수저 맨손이면 또 어떻습니까. 어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주님과만 동행해요.

- 높은 제단이 아니라 사람 사는 낮은 골목길에 계시는 주님! 우리 신앙의 날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라는 보물섬

마태복음서 13:31-32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예슈아 또는 예호슈아라는 흔한 유대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철수’나 ‘영희’처럼 흔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 예수님은 잠시 실종 아동 명단에 올랐었죠. 실종 신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인간이란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 평생 헤매는 존재’라 했지요. 소년 예수님은 조속했던 건 같습니다. 울먹이지도 않고 태연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보면 사생아였던 처지를 얼추 알아챈 때에 빚어진 갈등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사기에는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오는데 아버지께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생아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동네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불립니다. 소년 예수님과 말씨름하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당신처럼 사생아가 아니요”(요 8:41, 공동번역)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겨자씨처럼 작은 아이가 웅근 나무로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와 실 만큼 가지를 드리웁니다. 어린이는 모두가 보물섬입니다. 겉으로 보아선 알 수 없죠.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를 당신의 배에 초대합니다. 보물섬으로 가는 선장님, 예수님입니다.

-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서 1:33-34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몰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 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감으로 알아본 모양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많이 살펴보며 찾았을까요. 당시 유대사람들은 마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울음소리가 좀 커도 이 아기가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다고 합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으로 나선 수많은 이들에게 기대하고, 그러다 죽거나 사라지면 기대를 내려놓았다 하니 세례요한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가졌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마음에 품어 봅니다. 맑고 따뜻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올려주는 사람, 생명의 깊은 울림을 헤아려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나질 것 같습니다.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깊은 마음을 보게 하소서.

빛이 중헌디?

마가복음서 11:12-14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옷자란 나무 때문에 밭을 일구지 못할 때 도끼나 톱을 이용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나무를 향해 큰소리로 이렇게 외친답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네 그늘을 고마워하지 않아.” 그러면 거짓말처럼 나무가 시들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동네 입구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대고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입니다. 나무를 아프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두루 깨달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촛불혁명을 이끈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개혁의 완수를 부탁했습니다.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만든 적기의 ‘때’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뿐 아닌 공정한 사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요. 때를, 기회를 놓치면 앞날은 캄캄한 어둠 세상뿐입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은 제자들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정의와 사랑, 그리고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만방에 달려가 이 해방의 복음을 불굴의 의지로 전했습니다. 빛이 중헌디? 기회가 중요합니다. 때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느냐 물으시면 어찌 대답해야 할까요.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뽑아 버릴까요?

마태복음서 13:29-30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주인은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를 품고 있었고, 이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라지에게 한 몫을 내줄지언정 밀은 한 포기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명 환대의 마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생명은 모두가 동참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가라지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렇다 합니다. 아픔도 품고 분노도 삼키며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관심이 과도하지 않나 걱정할 만큼 이슈에 따른 표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민감할수록 날카롭고 걱정적인 평가들이 주의를 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의 밭주인 경우처럼 전체를 보며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관점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종들은 즉각 평가하고 부정하며 서둘러 심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종들과 다르게 주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명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땅에 들리오

아가 2:11-12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걷혔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말만큼 암울한 말이 또 있을까요? 지구의 아픔이 인간의 아픔으로 되돌아왔음을 실감한 일 년이었습니다. 인간의 학대에 지친 지구의 아픔의 소리를 그동안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란 것을 지구는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있음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견디고 있는 아픔의 시간을 지구는 오래 전부터 겪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모두의 아픔이 끝나고 우주만물의 신음소리가 그치는 날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훼손했던 그 땅에서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계절이 돌아오고,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날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주님, 우주만물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서17:11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가 그분의 제자와 그들과 연결된 ‘우리’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알았지요. 좀 더 자랐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흰 머리카락이 많아지고 지구와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 이제야 그 ‘하나’가 모든 생태계였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는 모두가 들어가는 커다란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건물 안에서 모이는 것이 곤란하여 야외로 나가 예배를 드리던 날들에 바람과 벌레와 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콘크리트 벽 안에서 고립되어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벽을 넘어 하나가 되기를, 그 하나가 자꾸 깊어져 우주를 품고 생태계와 한 줌 흙에까지 두루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 주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비롯하여 못 생명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끝나는 곳

예레미야서 15:18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 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셸 실버스타인의 『골목길이 끝나는 곳』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삽화만이 아련히 기억에 남아있는 책입니다. 어른이 되고 길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끔 책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찢어진 몸과 마음의 상처,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요? 낫기는 할까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막다른 길에 내몰린 채 주님께 항변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은 끝나지 않을 듯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주님 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지친 예레미야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느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골목길 끝 너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 길 너머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오늘밤 예레미야와 실버스타인의 책을 다시 들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 주님,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건네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이사야서 61:1-2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바빌론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절망합니다. 재건의 희망으로 꿈에 부풀어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재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거대한 도시를 보아왔던 유대인들의 눈에 고향은 여전히 폐허로 가득 찬 비참한 땅일 뿐입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도 그들만큼 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피폐함, 오랜 시간 지속된 식민지의 경험, 희망을 둘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곳 없었던 이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로 상할 데로 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고,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 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선포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아픔이 가득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 주님,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십시오.

자유로운 마음과 부활

요한복음서 20: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만지고 싶어 죽겠어.” 세월호 유가족의 뜨개 전시장 구석에 적힌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사랑은 만짐이라고 했습니다. “Love Is Touch.” 간절하면 통한다는데, 예수님은 문이 잠겼는데도 나타나십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항상 곁에 계시는 분.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죽음마저도 이 땅의 삶과 연결된 신비. 이걸 유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보이고, 체험 학습에 등록하지 않아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슬픔은 견디는 것이지 극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소설가 박완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작가는 “슬픔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으며 다만 견디는 힘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갑자기 스승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허둥댁니다. 슬픔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구는 두려움을 갖고 등 돌려 저 멀리 떠나갔지요. 움츠려 문을 걸어 닫은 이들, 문을 벽으로 삼은 자들에게 성서 기자는 부활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육중하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인사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물 들면 어떤 장벽도, 분단의 삼팔선도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벽 삼지 말아야지요. 웅졸하게 문을 걸어 잠근 배타심을 버릴 때 우리는 부활과 통일의 마당에서 뛰놀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 주님,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견뎠습니다. 진실 앞에서 화해와 사랑, 통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부활과 통일로 춤추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다린다는 것

마태복음서 25:1-4

“그러나,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기다리는 신부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신랑은 그이가 기다리는 것을 알기에 기꺼운 맘으로 갑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며, 보고 싶고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이를 향해 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기다리는 이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온다는 것을 믿기에 기다림이 형식적일 수도, 태만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을 향해 오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기다린다는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분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알기에 그를 향해 가는 것, 그가 누구라도 그것은 이미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곳입니다.

- 주님, 사람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알아보기

마가복음서 16:12-13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유머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보지는 않도록, 각자의 욕망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께서 했던 말과 정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말이지요.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알아차렸나 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지만 그들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며 버텼다고 전하네요.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내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모습은 낮설지만 다정함과 평화를 통해 만나지면 참 좋겠습니다.

- 주님,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연약함, 은혜의 빛을 위한 선물

고린도후서 12:9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할 때 신적이든 인간적이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자연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은인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지식과 경건과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무너지고 병들고 비난받을 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우리의 연약함은 마치 깨어지고 갈라진 항아리의 틈과 같습니다. 레너드 코헨의 노래 “Anthem(찬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where the l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깨어져 갈라진 틈이 있지.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네.)” 깨어져 갈라진 틈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은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누가복음 10:29-37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 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프고 지치고 곤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고통에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하나님.

저희에게 ‘봉사’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지치면 서로서로 기대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도 섬김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웃사랑의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용기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선행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도록
사랑 넘치는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묵묵히 수행하는 그들에게
언제나 샘솟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 모두가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고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우리의 오늘로 내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주민연대 살롱의집 사무국장 | 윤진규

벼랑 끝에 선 이들

마태복음서 12:15-21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 엘리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차가운 로비 바닥에서 수십 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무노동 무임금까지 감수하며

극한의 상황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대 자본 LG와 LG의 자회사, 친족 회사는 아무런 답변도 대화도 없습니다.

앞과 뒤가 모두 막혀 있어 바라 볼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처럼 일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내려주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힘든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동지들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이 땅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청소노동자들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불안한 노동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투쟁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낮은 자들,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승리,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엘지트윈타워분회 해고청소노동자 2인

‘어리석은 지혜’

고린도전서 1:18-25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
 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
 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
 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
 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혼돈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2020년 군복무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때

부모님은 저를, 저는 부모님을 염려했습니다.

연일 전해지는 전염병으로 인한 고민과 고통의 소식에

사람들은 자신을 염려하는 동시에 친구를, 가족을, 이웃을 염려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이 아픈 주간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특별히,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세상을 만날 준비에
힘겨운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경쟁과 스펙의 시대에, 저 혼자만 잘나면 좋은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는 그리 말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이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약한 저희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과 달리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어리석은 지혜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우리는 지금 큰 고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세상의 고통에 귀를 닫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지혜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피 끓는 청년의 뜨거움만이 아닌, 관계로 연결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저희 앞에 해나가야 할 인생의 과업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고,
또한 그런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
도전하고 실패하는 창조의 경험을 쌓아가
건강한 지혜를 갖추어나가는 시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곱씹으며
어리석은 지혜가 만들어 놓은 고통의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란한 시대,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

마가복음서 12:32-34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처음 겪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지난 한 해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알려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눈물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한창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아야 할 시기에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 결국 외로이 세상을 등지고 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복지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하셨던 주님,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의 무거운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웃의 슬픔에 예민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사회공동체 기본원리를 항상 잊지 않도록 해 주소서.
미움과 증오보다는 연대와 사랑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어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 참되고 복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 주소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소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의한 현실

마가복음서 15:15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숨통을 서서히 조여 오는 고통입니다. 참사의 책임자들 대부분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던 날, 가족들 대부분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사형을 언도한 재판정의 불의는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이나 가슴기살균 피해가족과 같은 사회적 참사 피해가족들은 재판정의 불의와 정부의 무관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은 아직도 해산의 고통 속입니다. 아니 달은 왔는데 진실은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나 겨우 목숨을 이어가며 진실을 기다리는 자 모두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모두 보았고 이미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법적인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는 저들을 주님, 벌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이었던 일에 대해 수사의 의지조차 갖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무서운 정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편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대신해 억울한 자들을 도우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알게 된 인류의 과오를 일깨워야 할 교회가,
겸손과 회개를 가르치기보다 분열과 증오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이유를 통찰하고
먼저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이웃뿐 아니라 자연과도 소통하고 연대해야 함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암흑이 깊으면 아침이 온다고 하지만
저희 신음이 깊은 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오랜 기다림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기운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기 힘들어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늘을 찌르는 권세 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어 주셔서
모든 생명이 함께 숨 쉬게 하옵소서.
아직도 흩어져 집으로 못 오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안산으로 돌아와 쉬게 하시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춤추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전 토요일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사이
 고통과 희망의 사이
 잘못과 깨달음의 사이
 믿지 않음과 믿음의 사이
 완고함과 유연함의 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이를 가로질러
 고통이 희망으로
 잘못을 깨달음으로
 불신을 신뢰로
 편견이 포용으로
 생명이 다시 새로워지는 초대이며 기회입니다.

이 '사이'에 놓인 오늘.
 모든 생명의 침묵은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 different form”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막 16:12).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과 변화를 요청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흔히 일상의 복귀를 희망하며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 이어온 총체적인 인간의 문제가 코로나19로 분출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불의와 고통과 탄식이 온 세상을 멈춰 서게 만들고 고통과 희망 사이에 있게 하였습니다.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세상에 부활의 희망과 생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유연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사랑과 평화의 걸음을 이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부활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2021년 1월 26일 초판 1쇄 인쇄

2021년 1월 29일 초판 1쇄 발행

역 은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펴 낸 이 이흥정

펴 낸 곳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706호

편집책임 강석훈 서범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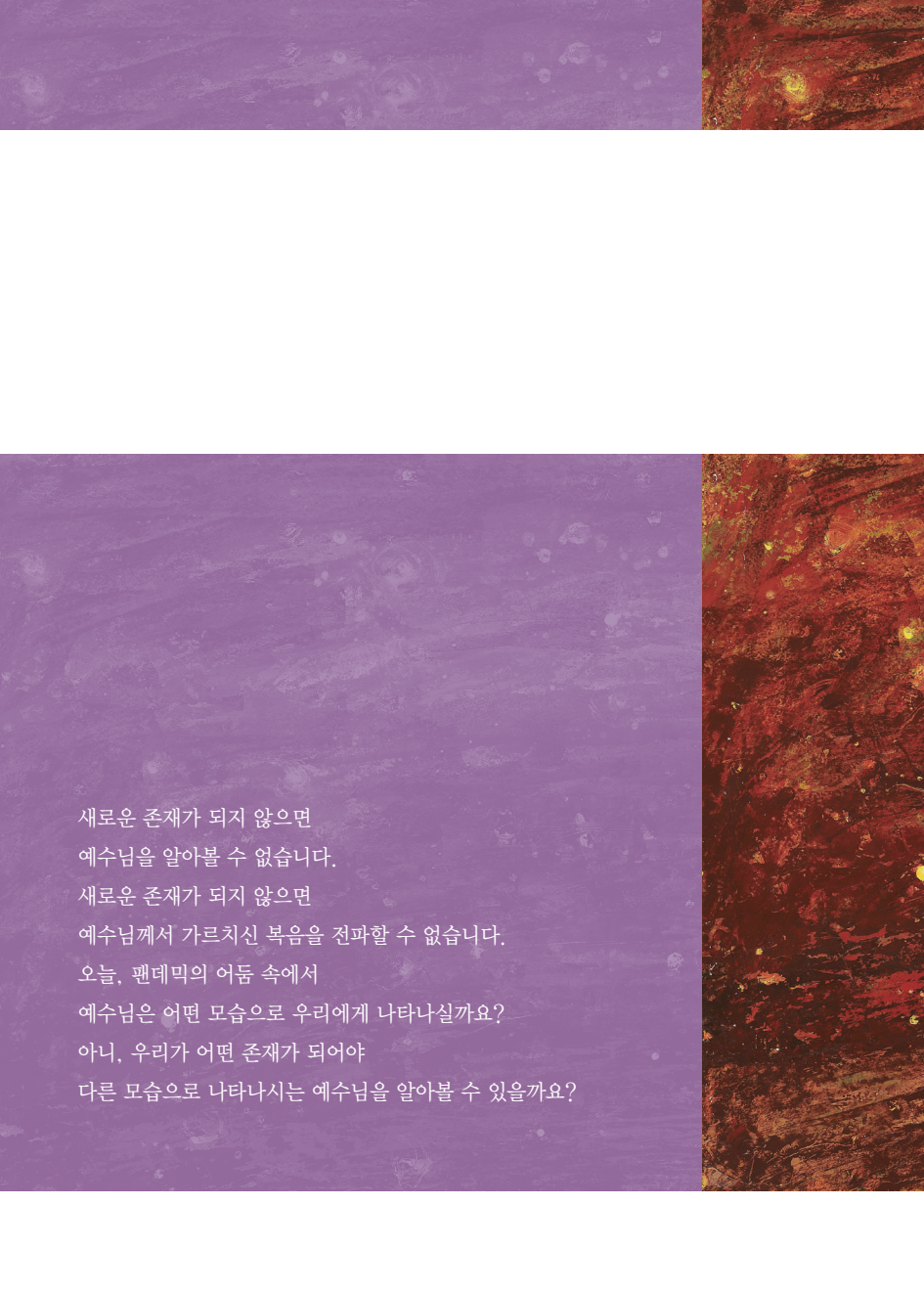
전 화 02-743-4471

팩 스 02-744-6189

디 자 인 동방기획(02-2277-0365)

Copyright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상집 사용 외에 다른 목적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오늘,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